

17세 한 아이

배움의 庭園



임효경
완도중 교장

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3월 2일 입학식과 개학식을 마치고 교장실로 찾아왔다. 수줍은 듯, 그러나 작심한 듯 '교장 선생님, 저는 3학년 기00인데요.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또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 아이의 마음을 열게 했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찾아 와 말을 건네는 중학생이라니, 참 대견하고 또 신기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또 한번 날 놀라게 했다. '완도중이 내 세상'이라는 상장을 만들어서 내게 주었다. 그 내용에 '완도중에 부임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장보고와 최경주를 이어서 완도를 빛내 줄 위대한 인물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취임사를 했었다. 그리고 독서와 글쓰기로 유튜브로서 활약하는 청년 이야기도 했었다. 어찌하였든 17살 한 아이의 어린 마음 밑에 한 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좋은 일이다.

스승의 날 이 아이는 나 뿐 아니라, 20여 명의 교사들 모두에게 표창장을 만들어 감사사를 표했다. 프로젝트 수업으로 마음을 사로잡은, 카리스마와 수업의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에게는 '나의 우상'이라고, 또 보건의 선생님에게는 '자(華 부지런할 자) 유(愈 병나을 유)의 여신상'을, 미모로 인기가 많은 선생님에게는 '넋 놓고 감상'을, 교감선생님께는 곧 교장이 되시라고 '왕이 될 상'을 수여했다. 그 아이디어와 발상이 기발하여 짹짹 놀랐다.

이 한 아이는 주변의 사람들로 부터 많

은 도움을 받았다. 먼저, 부모님이다. 아버지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낌없이 응원해 주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초등학교 시절에는 자유롭게 체험하도록 방목하셨는데, 그것이 스스로 깨닫는 기쁨을 알게 해 준 것이다. 어머니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독서를 생활화하시는 분으로 지역에서 유명하다. 학교 도서관 자원봉사에 앞장서고 계시면서,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려 하지, 앞에 나서려 하지 않는 모습이 참 특별한 분이다. 그런 부모님이 계시니 이 아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치를 찾아내고, 기꺼이 그 상황을 누릴 것이며, 고통과

"17살 이 여리고 약한 싹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더욱 푸르고, 강하게 자라나기길 바란다. 해상의 왕자 장보고처럼, 필드의 제왕 최경주처럼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온 마음으로 깃발 흔들며 응원한다."

어려움이라면 이겨내면서 또 다른 성취를 느낄 것이다.

두 번째, 선생님이다. 중학교에 들어 오니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학업 기술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꼈다. 마침 임용고시 출신 젊고 유능한 선생님들의 열정이 이 아이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 주었다. 필요없는 배움은 이 세상에 없는데, 특히 전문가들이 검증한 학교 교육과정 내용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역량을 길러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학교 선생님들을 무조건 신뢰하였다. 선생님들도 기특하여 더 열심히 가르쳤다.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고, 수업 중 궁금한 것은

질문하면서,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했다. 도서관에서 나오면 별도 보고 달도 보았던 날들이 많아졌다. 학년말에는 특히 어려워했던 수학에서 성적 우수자가 되어 표창을 받고 눈물이 났다. 3학년이 되니 자타가 인정하는 상위 1%였다.

올해에 이 아이는 청소년 참여 수업에 관심이 많은 사회과 선생님을 만났다. 지역사회 균형과 협업을 정책 제안을 하는 프로젝트 수업 과정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청출어람(靑出於藍), 선생님의 열정을 뛰어넘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변화가 필요한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활용을 당당하게 발표하면서 군수님도 깜짝 놀라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친구들이다. 이 아이는 완도중 스포츠 클럽 축구부 주전 공격수로 뛰면서, 혼자 잘 하려 하지 않고 친구들을 격려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친구에게 공을 넘겨 주면서 확실한 득점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 결과 교육감배 스포츠 클럽 축구 대항전에서 우리 학교가 우승하여 전남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이 아이는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한 후, 반 친구들에게도 공유하면서 혼자만 잘하려 하기보다는 친구들과 같이 잘하려고 했다. 수업 시간에 핵심을 찌르는 질문으로 반 전체의 면학 분위기를 살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래서 같은 반의 평균 학력이 향상되었다. 이 아이의 그런 점을 친구들이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한다. 이 사춘기 시절에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가히 가장 소중한 재산일 것이다.

17살 이 여리고 약한 싹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더욱 푸르고, 강하게 자라나기길 바란다. 해상의 왕자 장보고처럼, 필드의 제왕 최경주처럼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길 온 마음으로 깃발 흔들며 응원한다.

기고 박원종 전남도의원



인구감소,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진행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지구촌에서 가장 심각하다.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은 국가소멸이라는 위기까지 코앞으로 다가와 암울한 미래를 예측한 기사들이 줄줄이 쏟아져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15년간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이렇듯 미래 대한민국의 인구 전망은 매우 처참한 상황이다. UN이 밝힌 인구 전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50년 총 인구는 현재보다 11.7%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약 35.7%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부양 인구는 44.7%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총인구수보다 생산가능인구가 더 큰 비율로 감소하지만 피부양 인구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형태다.

현재처럼 출산율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총인구수는 예측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인구구조 변화는 피부양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발전 속도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한민국이 인구문제로 소멸 위기에 빠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간에 추진했던 정책들이 무엇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산, 보육과 관련된 인구정책을 살펴보면 단발성,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연 우리 젊은 세대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것일까.

정책수혜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진심 어린 질문과 토론을 시행해본 적이 있었는가. 정책은 수혜자의 의사가 가장 중심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계획 수립과 시행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지금 세대들은 아이의 교육,

놀이, 의료 등 3가지의 환경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출산을 고민할 것이다. 현금성 지원은 지원받는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인구이동을 통해 일부 지역의 출산율은 올릴 수 있겠지만, 지역 간 출혈을 낚는 보조금 경쟁만 일으킬 뿐이다.

최근 광주시가 출생축하금을 100만원으로 상향하자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10.5% 증가한 데 비해 인접 7개 시·군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6.9%가 감소했으며, 인접지역이 아닌 전남의 다른 지역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통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인구감소가 지방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일괄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정부 간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막고, 국가적 위기인 인구감소에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맡으면 지방정부는 육아를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이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98명이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동일한 예산이더라도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성 지출보다 인프라 구축의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줄기찬 현금성, 단발성 지원보다 주거, 문화, 보육, 교육, 의료 인프라와 같이 지방에서도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별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말 그대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기존의 지원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지방정부의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가소멸 위기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기부문화 활성화 세법개정 필요성

기고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호남총괄부장

연말이 다가올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추위가 강해질수록 도와야 할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탓에 초록우산에서도 아이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위한 '산타원정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돕는 일에 공감하고 함께하고자 나눈다. 주로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하시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등의 비현금성 자산을 기부하거나 유산기부를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부자 좋은 뜻과 달리 비현금성 자산을 기부하는 데에는 제도상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현행 조세 관련 규제들은 기부자와 비영리조직 모두에게 부담이 돼 오히려 기부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기부자가 대표적인 비현금성 자산인

부동산을 나누고자 하는 경우 비영리조직 입장에서는 주로 현금화를 통해 사업에 활용하고 있어 결국 매각이 불가피한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취득세 12%를 부담해야 하고, 이는 소규모 단체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 기부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부자에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기부를 권유할 수도 있으나 부동산을 직접 팔고 양도 차익에 대한 세 부담까지 져야 한다면 누가 그 기부를 선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부자가 부동산 처분 자산의 50%를 노후자금으로, 나머지 50%를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기부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유산기부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속증여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유산기부금을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유산기부자 뜻에 맞게 소외계층을 위해 쓰이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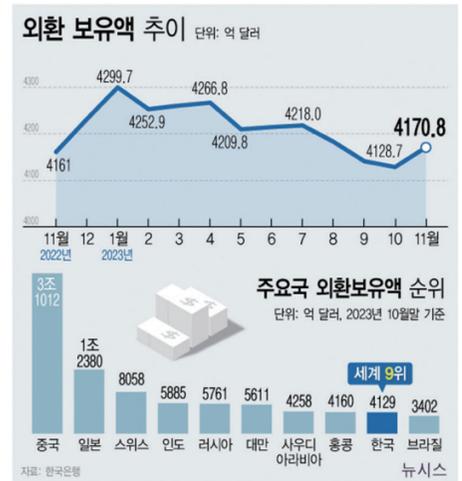
이처럼 비현금성 자산 기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월 국회에서 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로 공익 목적 법인 등 기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80%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특례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공익 법인과 단체까지 부동산 기부 관련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현실화되면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기부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법인 기부 관련 세제는 분명 공익 법인을 지원하고 기부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촘촘히 펼쳐나가겠지만,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은 비영리조직이 나서서 채워나가며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어렵게 모은 자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려는 모든 기부자들의 뜻이 존중받고 세금 걱정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금이든 비현금성 자산이든 힘을 보태는 기부자들에 세금 부담 대신 응원가 지지를 보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특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webmaster@jnlibo.com (062)510-0321